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23년 가족포럼

# 1인가구 · 돌봄 : 가족정책서비스 해법찾기

2023. 12. 5. (화) 13:30~15:30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8층 루비홀



2023년 가족포럼

# 1인가구 · 돌봄 : 가족정책서비스 해법찾기

**2023. 12. 5. (화) 13:30~15:30**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8층 루비홀



## 2023 가족포럼 개요

- 주제: 1인가구 · 돌봄: 가족정책서비스 해법찾기
- 일시: 2023. 12. 5. (화), 13:30~15:30 유튜브 온 · 오프라인 동시 진행
- 장소: 동대문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8층 루비홀
- 주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프로그램 목차

구 분	세부내용	비고
13:30~13:35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	
13:35~13:40	개회사	전주원 이사장 직무대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3:40 ~ 14:20	주제발표(1) 청년, 여성 1인가구 및 돌봄	박민선 센터장 (1인가구 솔루션 센터)
	주제발표(2) 노인 1인가구 및 돌봄	정경조 이사 (오픈도어 캠페인)
14:20 ~ 15:20	좌장	변미리 본부장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
	토론	이수진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김현섭 대표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
		이송은 연구원 (국가 트라우마센터)
권다솜 감독 (영화 '실금')		
15:20 ~ 15:30	질의응답 및 기념사진	
15:30	폐 회	



# 목 차

## 01 개회사 ..... 9 p

전주원 이사장 직무대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 주제발표 ..... 11 p

- 청년, 여성 1인가구 및 돌봄 ..... 11 p  
박민선 센터장  
(1인가구 솔루션 센터)

- 노인 1인가구 및 돌봄 ..... 21 p  
정경조 이사  
(오픈도어 캠페인)

## 03 토론문 ..... 45 p

- 더 행복한 1인 가구 돌봄 정책을 꿈꾸며 ..... 45 p  
이수진 센터장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 가족정책서비스 해법찾기 ..... 49 p  
김현섭 대표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

- 1인가구 돌봄 및 정책 서비스에 대한 토론문 ..... 50 p  
이승은 연구원  
(국가트라우마센터)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 전주원입니다.

오늘 가족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가족정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가족서비스를 총괄관리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및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포럼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증가와 이에 대한 돌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 나아가 가족정책의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1인가구지원센터 박민선 센터장님과 오픈도어 정경조 이사님, 특별히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연구원 변미리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맡아주신 이수진 서울복지재단 센터장님, 김현섭 에버그린 대표님, 이송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구원님, 영화 실금 감독이신 권다솜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1인가구 안에서도 성별, 연령별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청년과 노인1인 가구가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과 이에 맞는 돌봄 방안을 모색해 보고, 특별히 영화 ‘실금’을 다함께 시청하며 노인1인가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편견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2월 가장 바쁜달에 전국에서 이 자리를 빛내려 와주신 가족센터 센터장님과 종사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5일

전 주 원 이사장직무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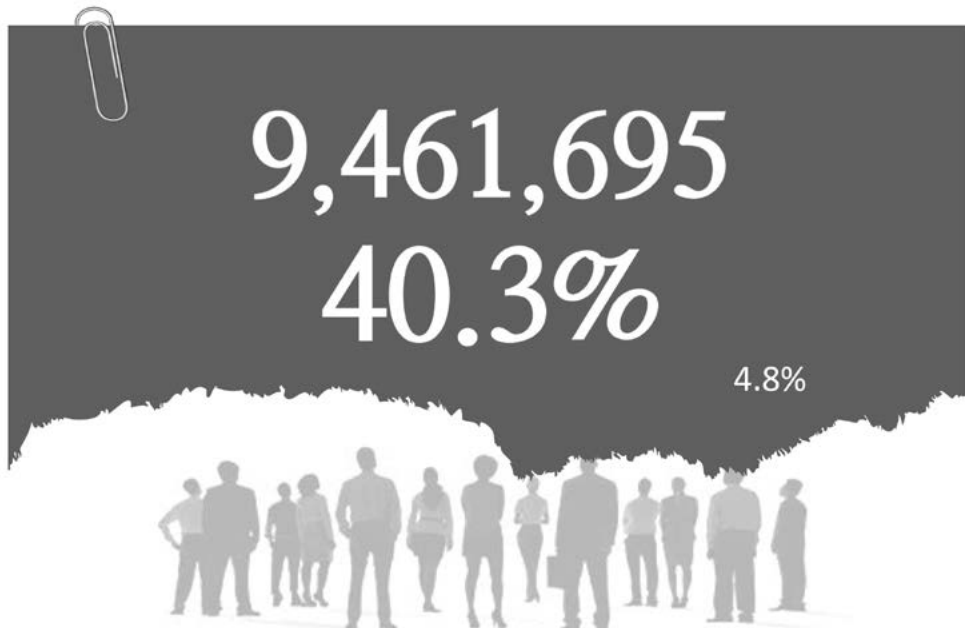


# 여성·청년 1인 가구와 돌봄

박민선 센터장  
(1인가구 솔루션 센터)

여성·청년 1인 가구와 돌봄

2023년 가족포럼  
1인 가구·돌봄  
정책연구 서비스 센터



[ 출처 : 2022.08.23 / 행정안전부 발표 통계 (전체 가구수 : 23,472,895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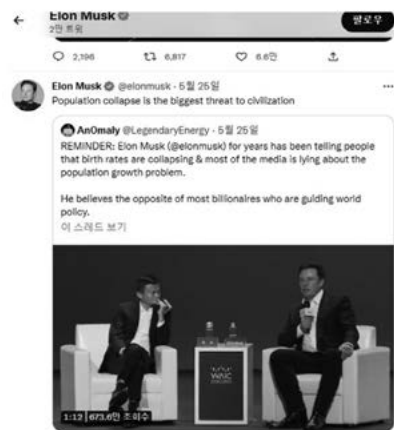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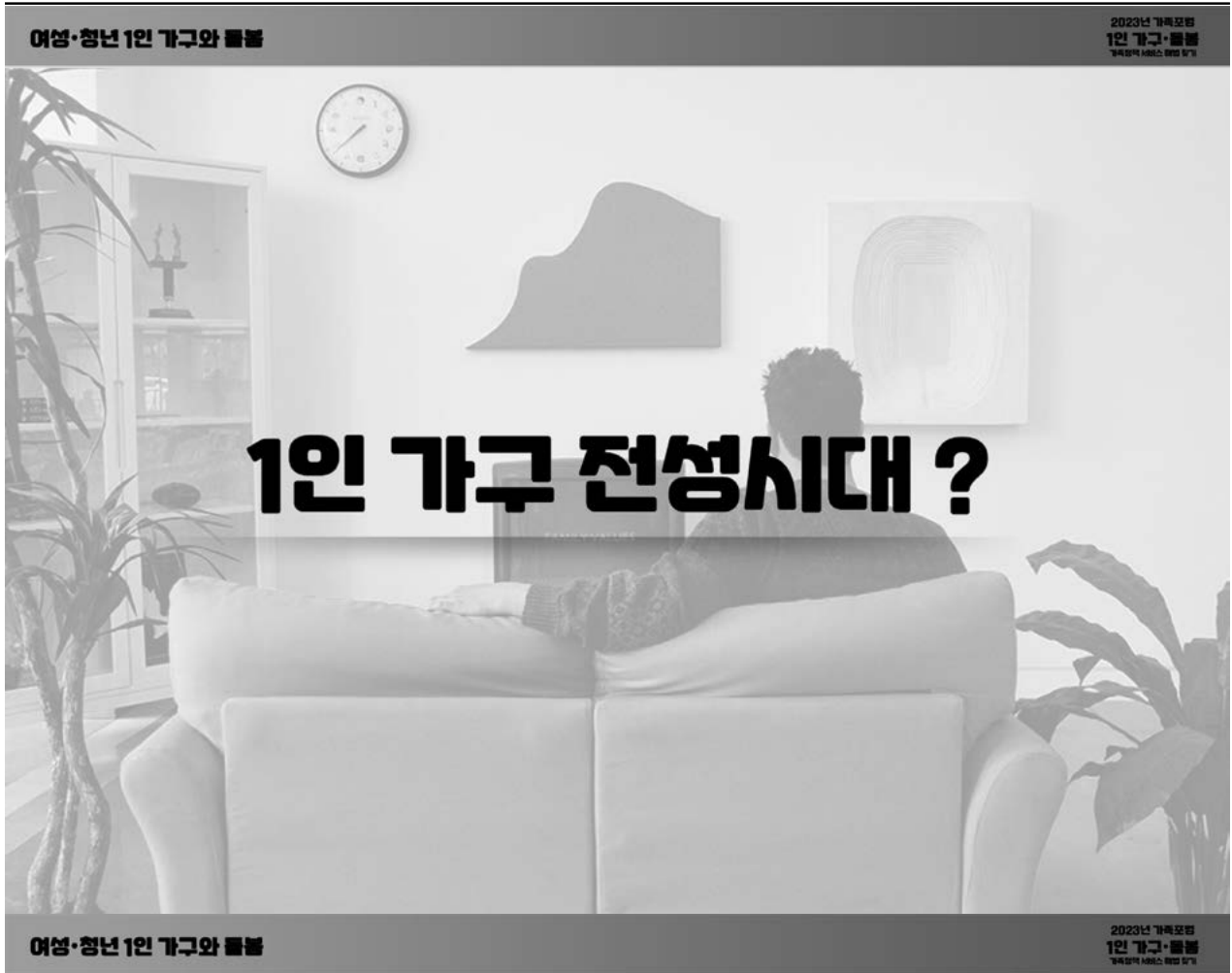
943만



38만

X 25





##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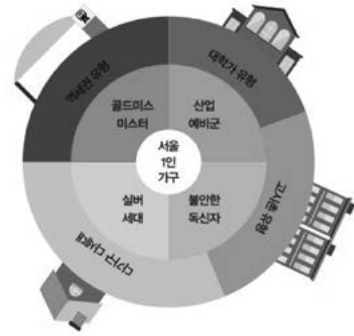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특징과 공통 어려움

### 1인 가구의 특징

- 높은 소비력 (편리함, 안락함, 충동성, 반려동물 등)
- 개인주의 성향
- 전반적으로는 열악, 그러나 다인가구보다 큰 다양성
- 최근 자발적 1인 가구 증가(전체 7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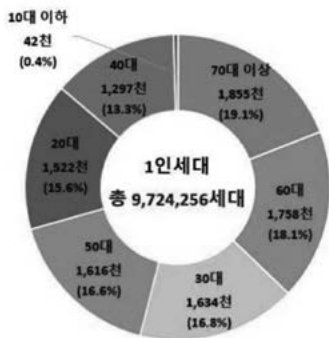
### 공통 어려움

- 낮은 건강 (의료비 1.4배) (2020 통계청)
- 범죄노출위험(주거집임, 우범지역, 스토킹 등) 높음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
- 고립과 우울의 문제 함유 (남성 고독사)
- 1인 가구 파악의 어려움, 낮은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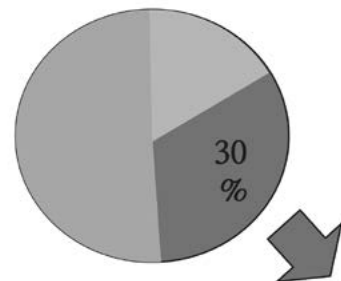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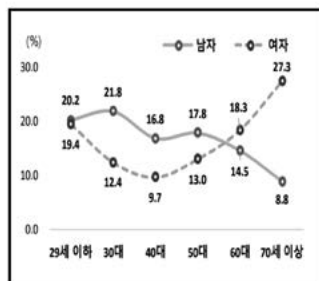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1인 가구 정책포럼 자료집(2021)

### 청년 1인 가구 1/3(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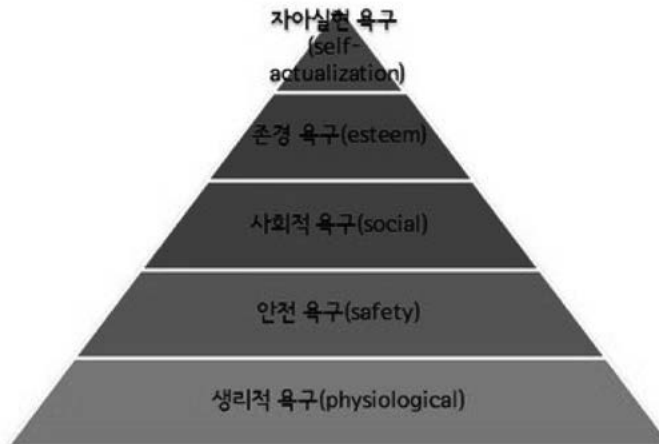
[연령별 1인세대] (행정안전부통계연보, 2023)

### 성별, 연령대별 여성 1인 가구 절반



대부분의 정책 쏠림 현상  
그럼에도...

##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 혼자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돌봄의 정의 및 범위

- ‘돌봄’의 정의 및 어원 - ‘돌아보다’의 옛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표준국어대사전)
- 건강가정기본법 내 ‘돌봄’
  - 제21조2(위기가족긴급지원)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아이돌봄 지원, 가사돌봄 지원 등 가족 돌봄
  - 제34조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 영케어러 밀착관리하는 ‘돌봄코디네이터’ : “영 케어러, 은둔청년 전담 관리할 ‘청년미래센터’ 세운다” (2023.9.15.노컷뉴스)

## 돌아보는 기능(돌봄)의 역할 필요한 시대 도래

- 대가족 혹은 4인 가구 기준의 사회에서 가족이 담당했던 기능을 대신할 대상, 기관, 커뮤니티가 필요
- 전통 가족의 역할: 안전, 보호, 정서적, 재생산의 기능
- 어디서 돌볼 것인가?: 친구, 이웃, 가족, 지역사회
-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오프라인(찾아가는 발굴 서비스), sns, AI돌봄
-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1인 가구의 필요, 욕구
- 돌봄의 범위 변경/확장 필요성: 1인 가구 정책/제도의 종합적 성격

다면적 성격 고려한 '돌봄' 영역 범위의 재정의 및 확대 필요

## 1인 가구 돌봄 관련 법제/정책

- 중앙 (관계부처 합동, 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의 5개 분야 정책대응방안 제시(2020)
  - : 관련 정부 정책 종합점검
  - : 소득/돌봄 영역에서는 상대적 소득 및 자산이 낮은 1인 가구를 선별, 기본생활 보장 강화 및 건강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
  - : 안전 영역의 경우 치안 및 방법 강화,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사업 활성화 강조



## 1인 가구 돌봄 관련 법제/정책(지자체)

- 부산: 4대 분야 8개 과제 : 1인 가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소득/돌봄, 안전, 주거, 생활/건강 분야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 지원  
- 소득/돌봄 분야에서 저소득, 취약 1인 가구 중심으로 자산형성 지원, 스마트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 경기도: 6개 분야 18개 추진과제: 외로움/고립, 식생활, 자립, 건강, 안전, 웰다잉의 6개 분야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 외로움/고립 분야에서 청년과 중장년 전용 커뮤니티 조성, 관계망 형성지원, 노년 1인 가구 AI활용 돌봄서비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
- 대전: 돌봄 분야 노년 1인 가구 방문 서비스 주력, 사회적 고립 예방 돌봄 지원 정책 수립
- 지자체 중 '돌봄' 용어가 포함된 1인 가구 정책 일부
- 영역 제각각 상이
-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 안심, 행복, 건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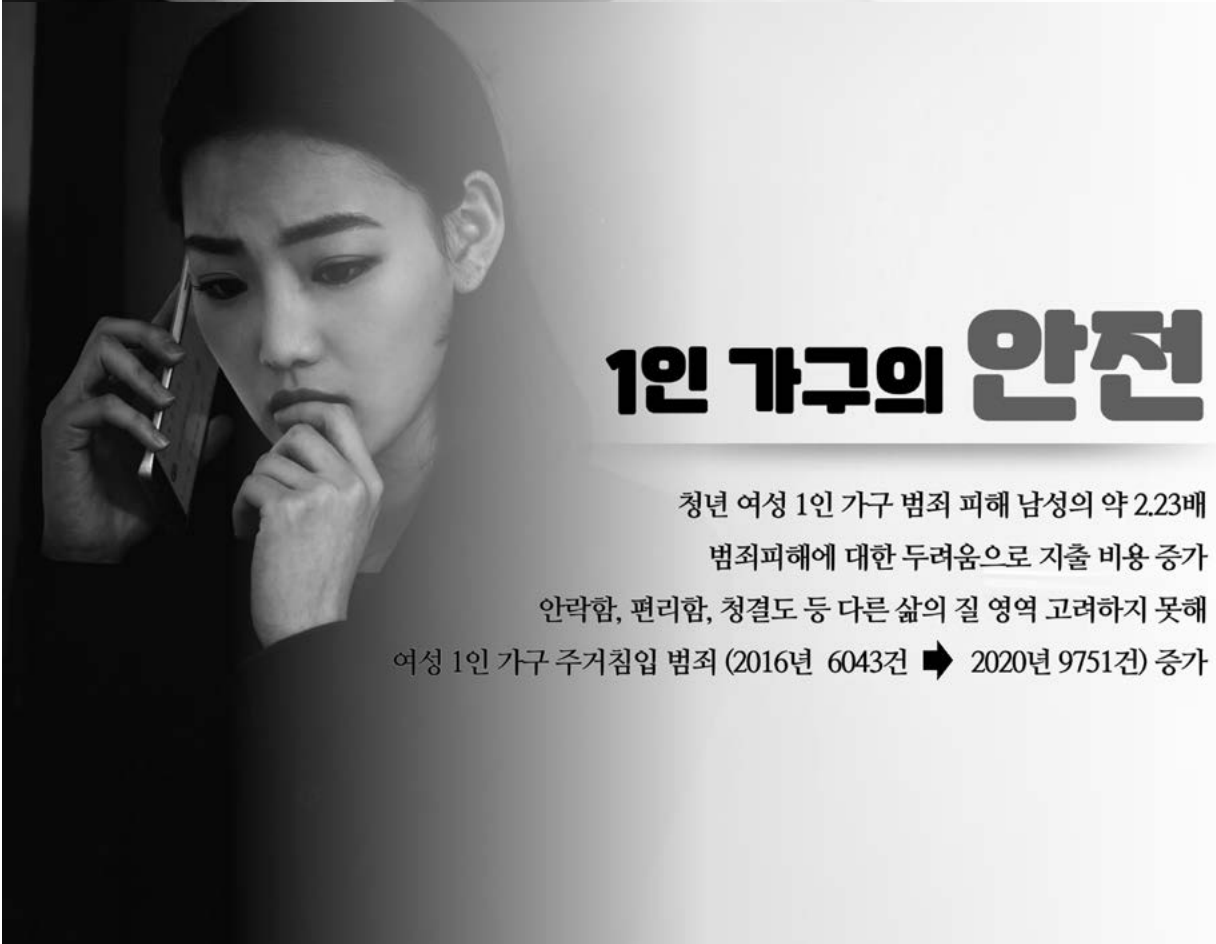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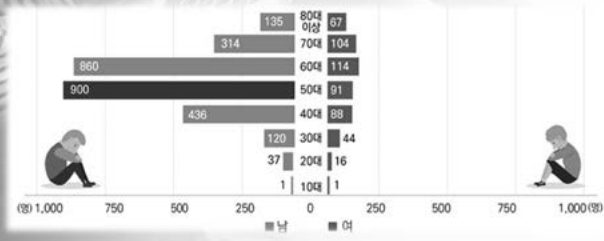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건강

혼밥, 혼술로 끼니를 지속  
배달음식, 편의점 간편식 등 불균형한 영양 습관  
건강 위험신호 쉽게 간과, 질병으로 발전  
1인 가구 평균 의료비 전체 인구 의료비의 1.4배



# 1인가구의 고립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 340만 (전체 1인 가구의 36%)  
 건강, 질병, 노화 등으로 위급 상황에 취약  
 고독사 절반 이상은 5060 세대 남성  
 남성 고독사 위험 여성의 5.3배 (2022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 1인가구의 안전

청년 여성 1인 가구 범죄 피해 남성의 약 2.23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출 비용 증가  
 안락함, 편리함, 청결도 등 다른 삶의 질 영역 고려하지 못해  
 여성 1인 가구 주거침입 범죄 (2016년 6043건 ➡ 2020년 9751건) 증가

# 1인 가구의 최근 이슈

- 2030 1인 가구의 높은 자살률
- 고립과 고독사 문제
- 고령 1인 가구의 빈곤, 돌봄 문제
-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노출 위험
- 관련 논쟁
  - 1인 가구의 범위,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 가족의 개념
  - 개인정보활용의 이슈
  - 1인 가구에 대한 지향점 변화요구
  - 자발적/비자발적 1인 가구, 결혼과 출산-가정에 대한 정책방향
  - 관련 법률/정책 간 충돌

- 01 / 1인 가구의 보편화, 어디까지 1인 가구로 포함할 것인가?
- 02 / 너무 빠른 증가속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03 / 1인 가구의 어려움을 어디까지 개인의 문제로 규정할 것인가?
- 04 / 사회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음



## 백년대계 (百年大計)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

스웨덴 1인 가구 56.6% (스톡홀름 60%)  
독일 괴팅겐 68%  
미국 뉴욕 이타가 62%

[출처 : 2019.12./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1인 가구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노인 1인 가구와 돌봄

정경조 이사  
(오픈도어캠페인)

- 1인 가구 현황과 추세, 공통 어려움
- 노인 1인 가구 실태와 어려움
- 노인 1인 가구 돌봄 지원
-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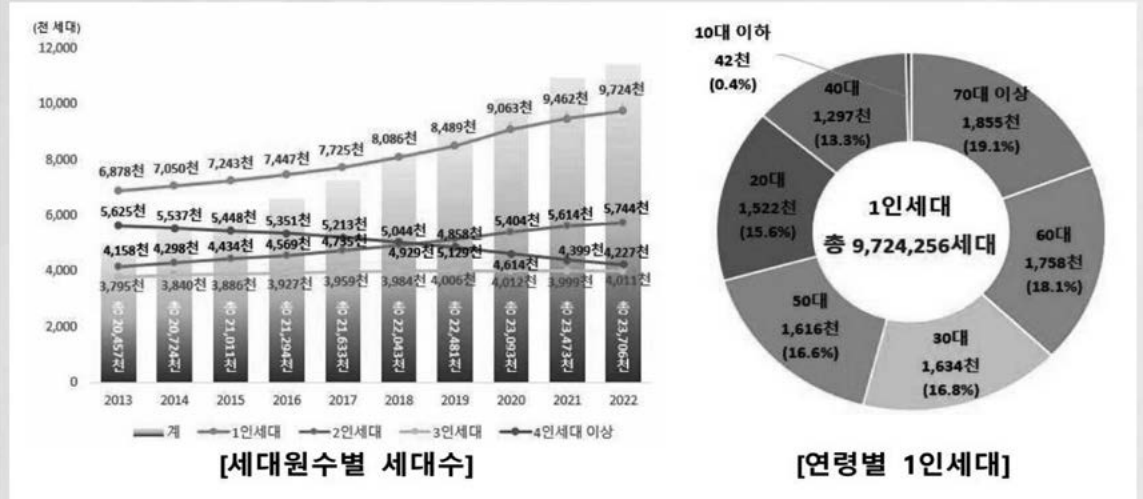
## 1인 가구 현황과 추세, 공통 어려움



열고, 이어가는 우리 오픈도어

1인 가구 현황과 추세

# 41%, 1,000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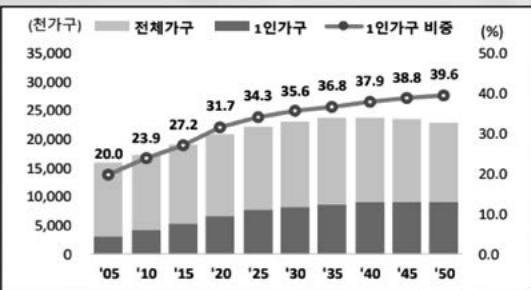


출처: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 2022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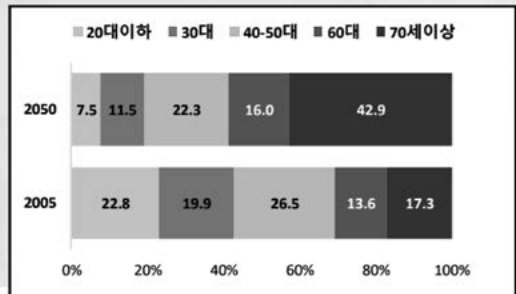
1인 가구 현황과 추세

# 1인 가구 추이, 2050년 ↑

## 1인 가구 추이



## 연령대별 1인 가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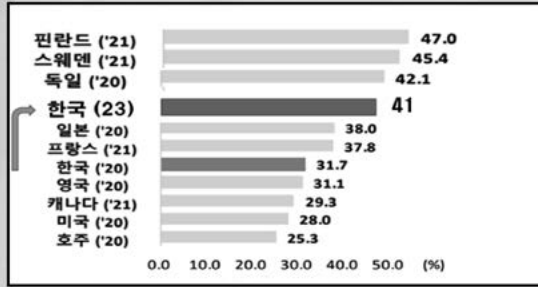


**예상보다 빠르게, 많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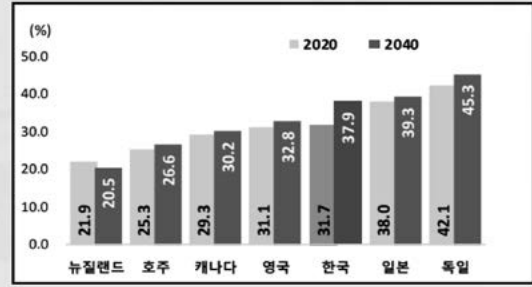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2020~2050」

1인 가구 현황과 추세

OECD 주요국  
1인 가구 비중(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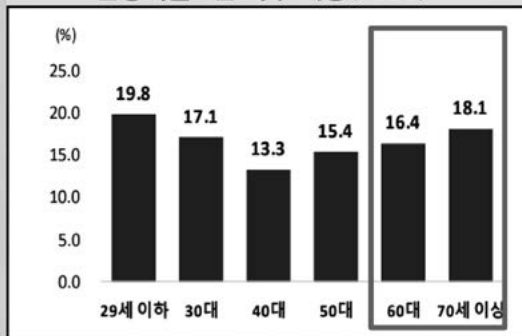
OECD 주요국  
1인 가구 전망(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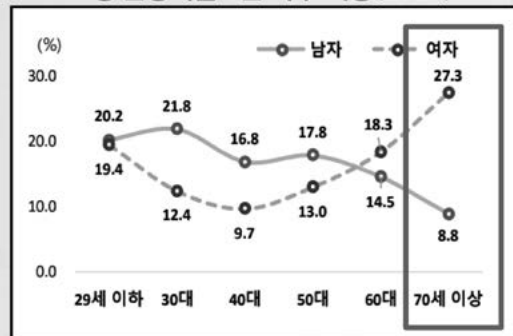
출처: 각 국가별 장래가구추계 자료 등

1인 가구 현황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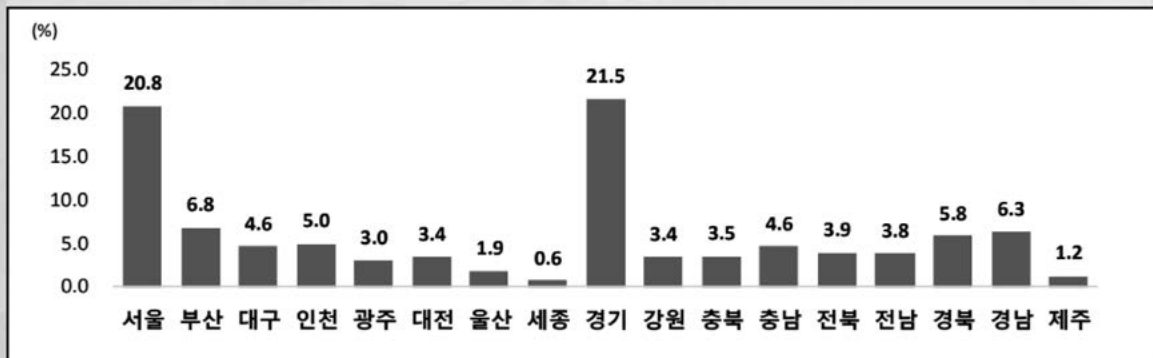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2021)



성·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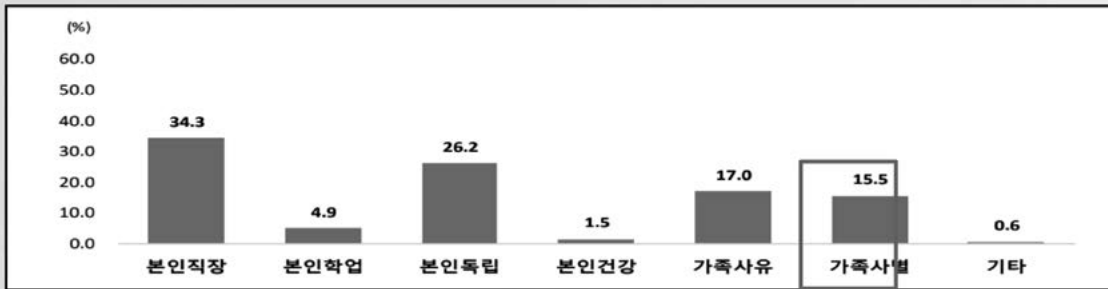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202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인 가구 현황과 추세

1인 가구 사유



(단위: 천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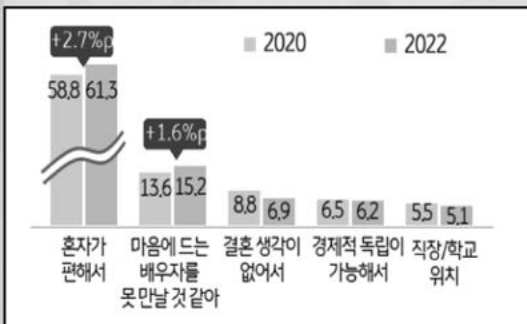
구분	구모	계	1인 가구 사유						
			본인직장	본인학업	본인독립	본인건강	가족사유 <sup>1)</sup>	가족사별	기타
1인가구	1인가구	6,643	2,278	328	1,739	103	1,128	1,030	38
	남자	3,304	1,438	175	960	53	389	265	23
	여자	3,339	840	153	779	49	738	765	15
	29세이하	1,343	675	321	275	0	53	16	3
	30~39세	1,115	656	6	361	5	60	23	6
	40~49세	904	413	1	345	12	88	38	8
	50~59세	1,039	340	0	351	24	225	89	11
60~69세	1,039	162	0	294	29	310	237	6	
70세이상	1,202	32	0	114	34	392	627	4	
비중	1인가구	100.0	34.3	4.9	26.2	1.5	17.0	15.5	0.6
	남자	100.0	43.5	5.3	29.1	1.6	11.8	8.0	0.7
	여자	100.0	25.1	4.6	23.3	1.5	22.1	22.9	0.4
	29세이하	100.0	50.3	23.9	20.5	0.0	4.0	1.2	0.2
	30~39세	100.0	58.8	0.6	32.3	0.4	5.3	2.0	0.5
	40~49세	100.0	45.7	0.1	38.2	1.3	9.7	4.2	0.9
	50~59세	100.0	32.7	0.0	33.7	2.3	21.6	8.6	1.0
60~69세	100.0	15.6	0.0	28.3	2.8	29.9	22.8	0.6	
70세이상	100.0	2.6	0.0	9.5	2.8	32.6	52.1	0.3	

출처 : 2022년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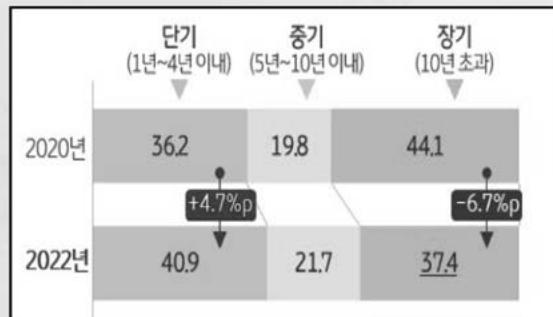
1인 가구 현황과 추세

1인 가구 의향 및 지속예상 기간

1인 생활 지속 의향 이유 Top 5 (단위:%)



향후 1인 생활 지속 예상 기간 [단위:%]



출처: 2022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인 가구 연구보고서

1인 가구 현황과 추세

혼자 사는 이유 중 비자발적 요인이 증가한 가운데, 1인 생활 지속 의향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의 1.5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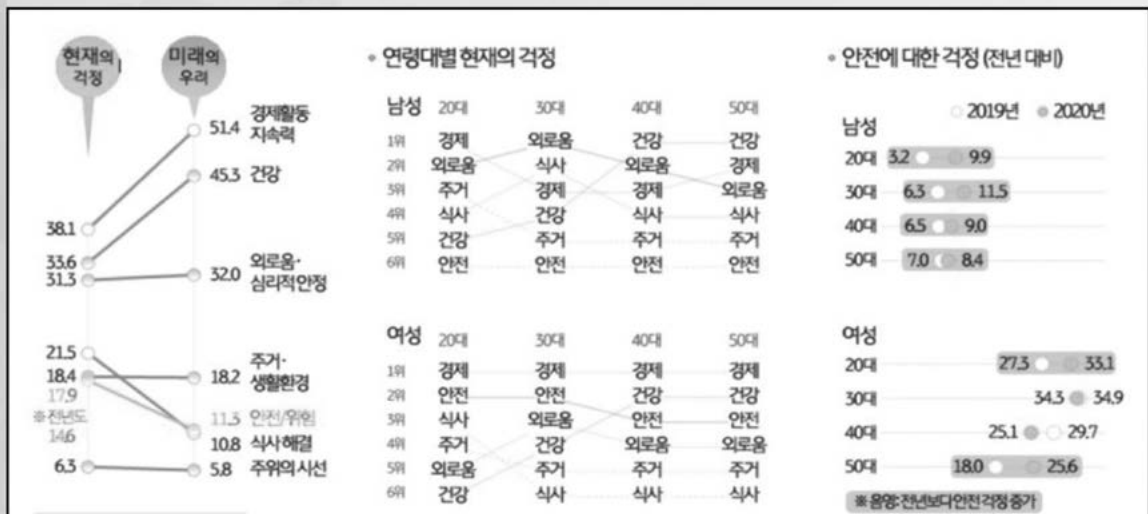


출처: 2022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인 가구 연구보고서

1인 가구 현황과 추이

연령대별 1인 가구의 걱정 거리

남성 40·50대는 2019년도는 "외로움", 2020년도에는 "건강"이 가장 높은 순위  
여성 전 연령대 경제력이 가장 큰 걱정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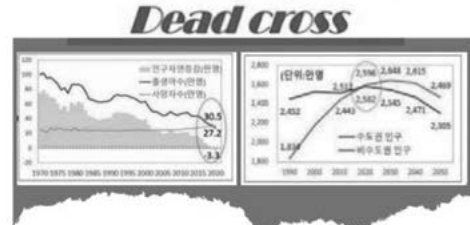
출처: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인 가구 연구보고서

1인 가구 현황과 추이

1인 가구의 급증

- 최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변화의 중심현상으로 빠르게 증가. 코로나 19 유행 이후 급증.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으로 자리잡음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사회문화적 변화 (개인주의)	평균 수명의 증가 남녀 수명 격차
수도권인구 집중 급격한 인구변화	코로나 19 유행	출산 인식의 변화 육아 부담 증가



- 1인 가구 형성원인 변화: 비자발적 < 자발적, 성차 존재
- 연령별, 지역별로 형성 원인 차이 존재 : 2030은 진학, 일자리(수도권 집중), 60 이상은 농촌에 거주



출처: 박민선, 1인가구 연속토론회, 시리즈 1

1인 가구 공통 어려움

1인 가구 어려움: 안전

청년 여성 1인가구가 범죄를 당할 가능성은 같은 주거 형태 남성보다 약 2.23배 높음 (2017년 1인 가구 범죄 피해 조사연구)  
 여성의 경우 주거환경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대rob과 가까운 정도', '후지미고 어두운 골목이 짧은 정도', '밤늦게까지 유통인구가 많은 정도' 등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주거환경을 선택하기 위해 남성보다 더 많은 주거비 용을 투자하며, 안락함과 편리함, 사회적 관계 유지 등 다른 주거 욕구는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규원, 김태형, 2019)



1인 가구 여성 대상 주거 침입 범죄 현황  
 2016년 6043건 / 2020년 9751건 대폭 증가  
 여성대상 주거 침입 2016년 이후 61.6% 증가  
 검거율 : 2016년 75.7% / 2020년 72.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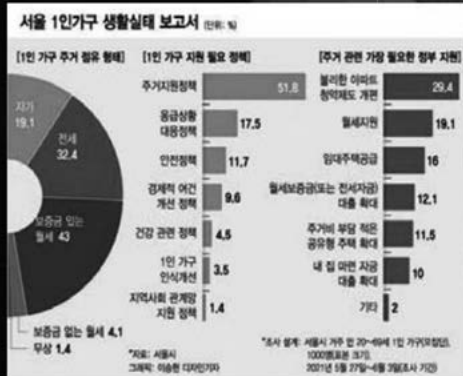
**대응방향: 1인 가구 안심 대책 마련 및 기존 정책 활용 방안 마련**  
 예: 경찰청 스토킹 범죄예방, 여성긴급전화 1366, 말 없는 112 신고 특목

출처: 박민선, 1인가구 연속토론회, 시리즈 1

1인 가구 공통 어려움

## 1인 가구 어려움 : 주거, 빈곤

전체 가구 중 자가 비중 58%, 보증금 있는 월세 19.7%, 전세 15.1%  
 1인 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 38%, 자가 30.6%, 전세 15.8%



서울 1인가구 주거 실태조사  
 1인 가구 필요 지원 정책 : 주거지원 정책 51.8%  
 주거 관련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 불합리한 아파트 청약 제도 29.4%  
 월세 지원 19.1% / 공유형 주택 확대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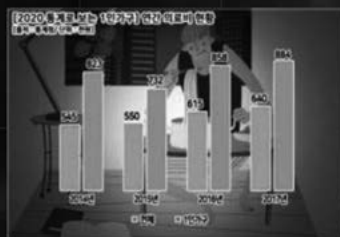
## 대응 방향 : 1인 가구 주거 제도 및 법적 개선 방안 마련

출처 : 박민선, 1인가구 연속토론회, 시리즈 1

1인 가구 공통 어려움

## 1인 가구 어려움 : 건강

- 신체적 건강:** 1인 가구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서 다인 가구보다 낮은 수준  
 다인 가구에 비해 높은 1인 평균 의료비, 비만 발생 위험 증가 (Hedblad et al., 2002), 높은 질병 발병률 및 사망률(Nielsen et al., 2006)  
 혼밥, 혼술 등 혼자서 식사하는 빈도 높아 영양불균형이 큼(대한의사협회, 2017)
- 심리적 건강:** 의료비와 고독,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건강 상태 나쁨: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스트레스 더 많이 느끼고 우울감이 더 높고, 수면시간도 더 짧은 편(김은경, 박숙경, 2016)
- 사회적 건강:** 이웃이나 가족, 친구와의 접촉이나 정기적 활동 참여 낮음(신미아, 2021)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회도 적음(김은경, 박숙경, 2016)



1인 가구 연간 의료비 88만 4천원  
 18세 이상 인구 의료비 64만원  
 약 1.4배 높음  
 자료 : 2020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연간 의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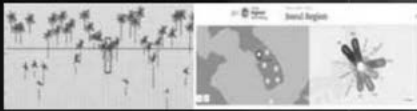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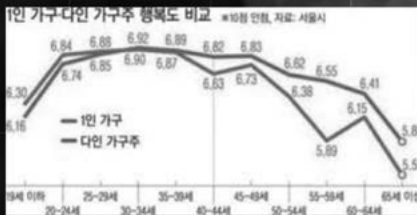
## 대응 방향 : 1인 가구 건강 수준 개선 방안 마련, 사회적 연결망 마련

출처 : 박민선, 1인가구 연속토론회, 시리즈 1

1인 가구 공통 어려움

## 1인 가구 어려움 - 삶의 질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행복감이 낮음 (신미아 2021)  
 OECD 등에서는 지역 별 삶의 질 지수 개발하여 국가별로 삶의 질(행복도)을 높이기 위해 개선 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지원하고 있음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상반기 2,314명으로, 2018년에 비해 최근(2021년)에는 47%나 증가 (복지부, 2022)

**대응 방향: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

출처: 박민선, 1인가구 연속토론회, 시리즈 1



## 노인 1인 가구 실태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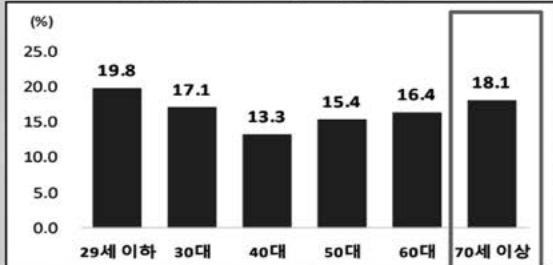
열고, 이어가는 우리 오픈도어

1인 가구 실태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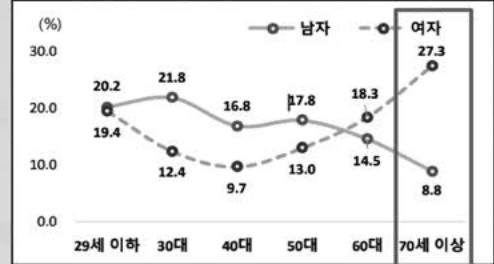
**22년12월 기준 1인 가구 41%, 70세 이상 1인 가구 19.1%**

- '21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천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2.12.31기준 전체가구 23,706천 가구, 1인 가구 9,724,256, 70세 이상 1인 가구 1,855천(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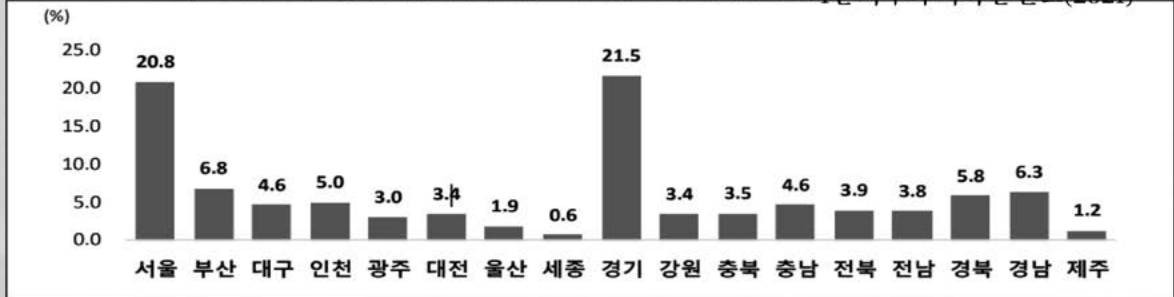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2021)



성·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2021)



60대 1인 가구 경기, 서울에 이어 부산, 70세 이상 1인 가구는 경기, 서울, 경북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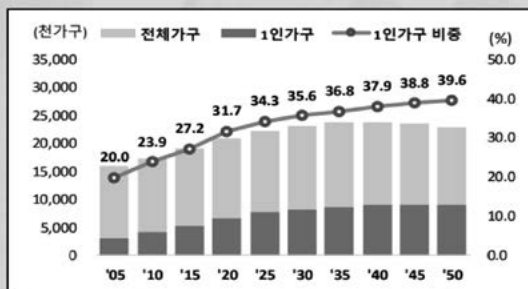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표 (50, 51쪽)

1인 가구 실태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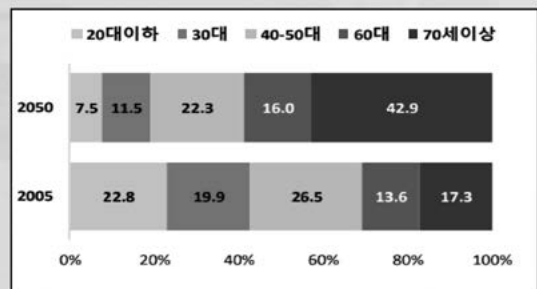
**2050년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 42.9%로 증가 전망**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20.0%였으나, 2030년 35.6%, 2050년 39.6%로 전망(※2022.12. 1인 가구 41%)
- 2005년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17.3%였으나, 2050년에 42.9%로 증가 전망

1인 가구 추이



연령대별 1인 가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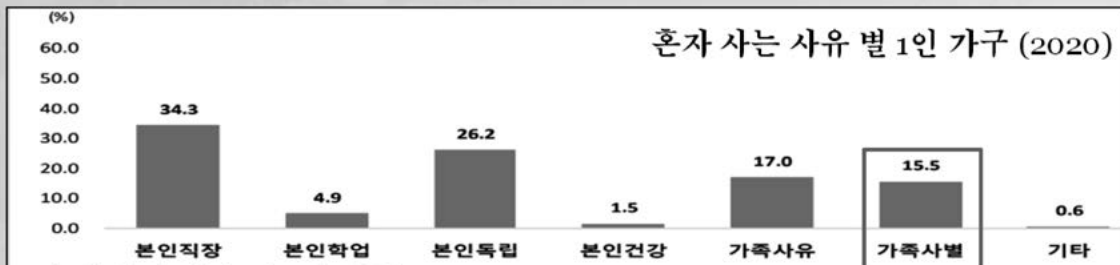


출처: 2022년 통계자료

1인 가구 실태와 어려움

**70세 이상 1인 가구의 사유는 가족사별이 52.1%**

- '20년 1인 가구의 혼자 사는 주된 사유는 본인직장이 34.3%로 가장 많았고, 본인독립 26.2%, 가족사유 17.0% 순
- 70세 이상 1인 가구의 혼자사는 사유는 가족사별이 52.1%이다



성·연령 및 사유 별 1인 가구(2020)

(단위: 천 가구, %)

구분	1인가구	계	사유						
			본인직장	본인학업	본인독립	본인건강	가족사유 <sup>1)</sup>	가족사별	기타
성	6,643	6,643	2,278	328	1,739	103	1,128	1,030	38
남자	3,304	3,304	1,438	175	960	53	389	265	23
여자	3,339	3,339	840	153	779	49	738	765	15
연령	1,343	1,343	675	321	275	0	53	16	3
29세 이하	1,115	1,115	656	6	361	5	60	23	6
30~39세	904	904	413	1	345	12	88	38	8
40~49세	1,039	1,039	340	0	351	24	225	89	11
50~59세	1,039	1,039	162	0	294	29	310	237	6
60~69세	1,202	1,202	32	0	114	34	392	627	4
70세 이상	비율	100.0	2.6	0.0	9.5	2.8	32.6	52.1	0.3

출처 : 2022년 통계자료

노인 1인 가구 어려움

노인 1가구 어려움: **경제적 빈곤**

- 1인 가구 노인 78.2%가 생계비 마련 위해 경제 활동
- 1인 가구 소득수준은 다인 가구 대비 낮고,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격차는 크다

가구원수별 가계소득(2016년) (단위: 원)

연령	1인가구 균등화소득 (A)	다인가구 균등화소득 (B)	다인가구 가계소득	A/B
30대 미만	1,771,069	1,955,870	3,174,816	90.6
30대	2,661,004	2,529,233	4,564,213	105.2
40대	2,659,629	2,666,984	5,005,338	99.7
50대	2,325,992	2,980,166	5,137,197	78.0
60대	1,342,270	2,262,063	3,594,052	59.3
70대 이상	952,247	1,328,807	2,027,027	71.7
전체	1,703,378	2,501,690	4,399,190	68.1

주: 균등화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 후생수준을 비교/능력소득 가구소득을 각 가구원 수 소득으로 전환한 소득으로, OECD 계급과 유사 방법에 따라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  
 자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미시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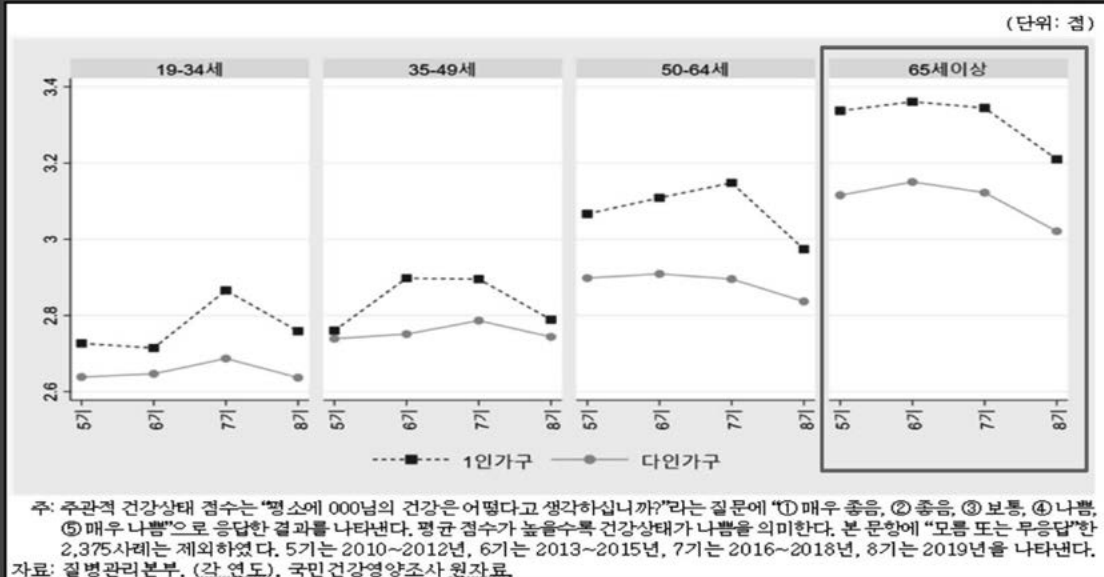
-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60세 이상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격차가 큰 편
- 균등화 소득을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 70대 이상 1인 가구의 소득은 각각 다인 가구의 78.0, 59.3, 71.7 수준
- 65세 이상 1인 가구 노인 중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는 33.0%에 불과, 3명 중 2명꼴인 67%가 준비를 하지 않음

자료 : 서울시 1인가구 정책포럼 자료집(서울연구원,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통계연보'

노인 1인 가구 어려움

노인 1가구 어려움: **건강**

-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중년기와 노년기 1인 가구의 건강 수준이 다인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았음



자료: 1인 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1인 가구 어려움

노인 1가구 어려움: **건강**

- 2018년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1인 가구 노인이 한 달 동안 받은 돌봄 시간의 평균은 65~74세 31.74시간, 75세 이상 59.04시간.
- 1인 가구 노인은 대체로 다인 가구에 속한 노인에 비해 간병인 등으로부터 받은 공식 돌봄 시간이 좀 더 많았지만,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비공식 돌봄 시간이 훨씬 적었음.
- ※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 1인 가구의 비공식 돌봄 부재가 노인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돌봄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의미

노인의 공식 돌봄 수급 시간과 비공식 돌봄 수급 시간 평균 (단위: 시간)

구분	공식 돌봄 수급 시간					비공식 돌봄 수급 시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0	2012	2014	2016	2018	
65~74세 노인	1인 가구	5.36	46.50	22.80	17.74	14.89	13.38	11.23	15.03	23.04	16.85
	노인-장애훈인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	10.53	15.84	8.31	9.59	32.88	101.76	67.77	75.38	67.84	55.99
	그 외 다인 가구	20.14	34.20	18.14	2.20	5.46	51.41	75.55	53.74	40.29	70.28
7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24.30	39.54	38.23	50.10	41.45	42.22	14.87	40.17	18.34	17.59
	노인-장애훈인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	16.06	22.23	32.67	16.92	38.60	73.26	77.24	61.44	62.77	65.65
	그 외 다인 가구	31.10	39.36	29.54	23.63	33.22	83.04	67.40	56.53	52.83	64.74

주: ADL이나 IADL에 하나 이상의 제약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일상생활 도움을 한 달 동안 평균 몇 시간 받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식 돌봄'은 공공기관에서 보내 준 간병인, 개인 차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을 의미하고, '비공식 돌봄'은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기타 다른 친인척,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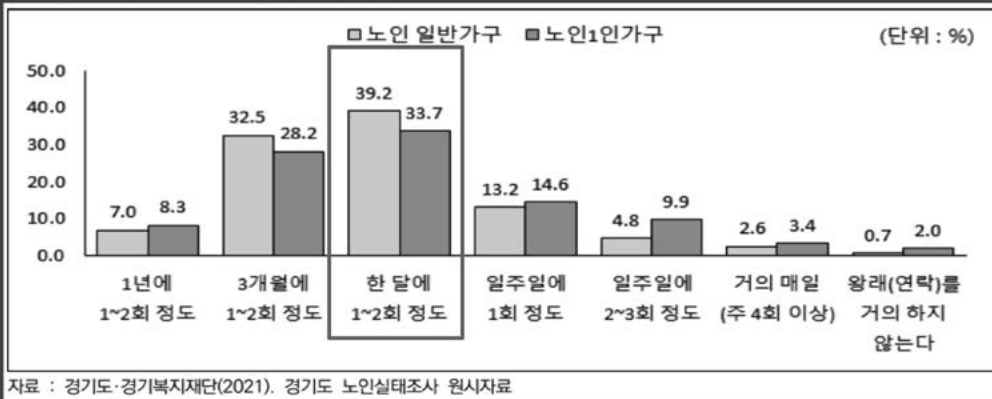
자료: 1인 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1인 가구 어려움

노인 1가구 어려움: **사회적 관계 망**

- 노인 1인 가구의 자녀와의 왕래 빈도 한 달 1~2회 정도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일반가구는 39.2%)
-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빈도는 1주일에 2~3회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노인1인 가구의 26.7% (노인일반가구도 25.1%)
-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중 친인척 수는 노인1인 가구 평균 2.06명, 친구·이웃·지인 평균 2.93명 (노인일반가구 2,13명, 2,89명과 유사)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와의 왕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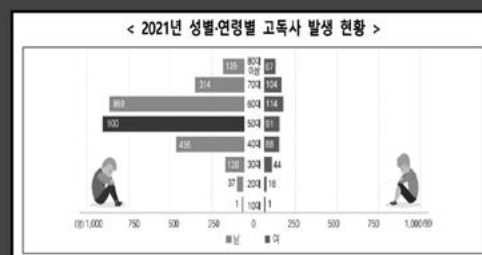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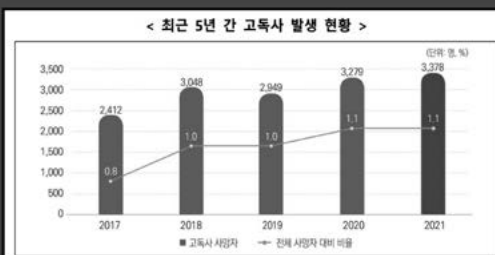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연구

노인 1인 가구 어려움

노인 1가구 어려움: **고독사**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
  -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
  -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 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50% 이상)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남성 고독사 10.0%, 여성 고독사 5.6%
  -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16.5~19.5%,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음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 주택, 아파트, 원룸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절반 이상(50.3~65.0%)을 차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
- 최초 발견자 :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출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 노인 1인 가구 돌봄 지원



opendoor

열고, 이어가는 우리 오픈도어

노인 1인 가구 돌봄 지원

## 주요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1인 가구 돌봄 지원

▣ 비전과 목표

- 비전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 목표 :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4대 핵심요소

-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 ②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 연계실' 운영
-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
- ④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 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군,구)

노인 1인 가구 돌봄 지원

▣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내용

▣ 직접 서비스

- ①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②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③ 생활교육 :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④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 1인 가구 돌봄 지원

- **추진목표** :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 마련
- **추진방향** : 재가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자원 또는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중점



■ **주요서비스**

- 방문의료지원센터(팀): 지역 내에서 방문 진료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시·군·구 노인통합지원센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협력하여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서비스: 퇴원 후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에게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불필요한 재입원 및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살던 지역에 성공적으로 복귀·안착하도록 지원
-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케어안심주택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공적 제도권에 진입하기 전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일상생활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제공 이동지원, 가사지원, 영양, 식사지원

노인 1인 가구 돌봄 지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 2023 ~ 2027 }

<b>비전</b>	초고령사외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li> <li>•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li> </ul>
<b>주요 과제</b>	<b>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b> ①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②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확충 ③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b>2.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b> ①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사례관리 강화 ②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 도입 및 등급체계 개선 ③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
	<b>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b> ①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혁신 ② 서비스 평가·관리체계 강화 ③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b>4. "초고령사외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b> 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②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③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 구축

## 돌봄 서비스는 .....

-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와 돌봄의 수요 증가에 대비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체계 추진
- ▣ 가구 구성과 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비
  - 1인 가구 노인 혹은 노인 부부로 이뤄진 노인 가구 증가
  - 경제적 불안,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부모 부양의 책임이 정부와 사회에도 있다는 인식 변화와 가족이 모든 돌봄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운 점에 대한 대비
- ▣ 베이비부머 세대 신 노년층의 노년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발전적 돌봄서비스
- ▣ IT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발전
- ▣ 노인 1인 가구의 어려움 요소를 대부분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 맞춤형 서비스 발전
- ▣ 노인 1인 가구 돌봄을 위한 제언
  1. 일상돌봄 지원
  2. 고독사 예방
  3. 보이스 피싱 예방
  4. 돌봄기술 개발 및 활용



##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열고, 이어가는 우리 오픈도어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1** 일상 돌봄

▣ 현장의 소리

**서재원 : 한아름 복지회 센터장**

(한아름 복지회 돌봄 인원 300여명 노인 1인 가구 인원 90여명)



“노인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  
그러나 그분들의 요구하는 돌봄 서비스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일상돌봄을 많이 호소해요”

- “ 외로움이 제일 크죠”
- “ 병원 가기가 어려워요(대형 병원) ” ,
- “ 집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 ,  
(장보기, 간단한 집수리 등)
- “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도 어렵고,”
- “ 아플 때 죽 하나 끓여 먹는 것도 힘들어요”

- 일상돌봄 요구는 노인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요구 내용이 다양하며, 서비스 제공 주기도 비정기적이고, 수요도 다양하고, 보편적 지침 마련이 제한적임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 제안 :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 해외사례



**영국의 썬클모델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돌봄공동체로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 사람들의 요구를 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고 서비스의 확장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의 효과 있음.



**일본의 복지클럽 :** 오래 생활한 지역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살며 상부상조하는 생활하는 것을 이어나가기 위한 ‘재택복지지원 시스템’ 만들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택배에 의한 공동구매 시스템, 건강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돌봄 포함 고령자 재택 및 복지시설 네트워크 시스템을 중심으로 활동

▣ 국내사례



**품앗이학교 :** 사업의 추진주체는 여민동락 노인복지센터이며, 경로당 주간보호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2012년 사업의 명칭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내 독거노인 통합지원 프로그램-자립과 자치로 일구는 지역공동체복지 ‘품앗이학교’ 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거나 노노케어 일자리에 참여하여 고령의 마을 어르신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의 돌봄공동체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일상돌봄은 국가 중심의 공적돌봄지원체계로 제공하기 어려운 돌봄서비스  
따라서 일상돌봄에 있어서 노인돌봄의 주체가 지역사회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 노인돌봄의 주체 : 지역사회에서 마을주민과 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방식의 돌봄
-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로 운영 시 기대효과
  - ① 돌봄을 매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음
  - ② 노인1인가구가 일방적인 돌봄의 수혜자로 존재하기 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주체자로 참여하는 것이 노인의 정서적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노인돌봄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주거지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건강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노인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됨.

출처 : 지역연대에 기초한 노인1인가구 돌봄지원방안,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2 고독사 예방

현장의 소리

연령대별	고독사 발생비율
30대	6.2%
40대	17.0%
50대	29.0%
60대	17.7%
70대	9.1%

성별	고독사 발생비율
남성	73%
여성	17%
확인불가	10%

① 김명숙 : KBS PD

분석 자료  
경찰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31,891건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보고서 966건  
총 32,857건 분석  
2013년 1월 ~12월 (1년 자료)

56세 남자  
숨진 지 6일 만에 발견  
사건기록  
변사자는 직업이 없는 자로  
급성 심부전증에 의해 사망한 것을  
옆집에 거주하는 이가 이상한 냄새가 나  
수상하게 생각 112에 신고

고독사 취재 현장의 5가지 공통점

1.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 있다
3.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다.
4. 자살자가 많다
5. 사망 전 도움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출처 : 1인가구 연속토론회 시리즈 2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 150통의 고독생 제보 전화

“하루 종일 외롭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말할 데가 없어서 말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100번으로 전화를 걸어요.  
 전화요금 안 나오는 데에  
 잠깐 한마디 말이라도 하려고”  
 - 혼자 산 지 20년, 75세, 남성

저는 아무 전화나 오는 대로 다 받아요  
 혹시나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인부라도 물어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에요  
 요즘 스피어 전화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다 받아요

“아플때 가장 힘이 들고요,  
 이렇게 혼자 있다가  
 언제 어떻게 죽게 되면  
 내일 신문에 보도되겠지...  
 집에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깐요”  
 - 혼자 산 지 3년, 74세, 여성

출처 : 1인가구 연속토론회 시리즈 2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 현장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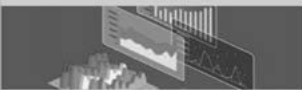
## ② 김현섭 : 특수 청소에버그린 대표

### 고독사 예방 대책 제안

point

01

#### 정확한 고독사 통계



지역별로 자체 집계를 하고있으나  
시신 인수가 없는 '무연고사'와 혼동

고독사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부처 장관 및 전문가  
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의 개최실적은 0건

point

02

#### 고독사 위험군 발굴



고독사 통계를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

정신적 경제적 문제를 겪고있는 주인에 대한  
복지데이터 연계

point

03

#### 경제적 자립 지원



현장에서 접한 고독사 현장의 대다수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된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 최근사례

-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 습니다. 배달된 요구르트가 현관문 앞에 며칠째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이웃이 보고 신고해서 알려 짐(2023.11.7)
-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출처 : 1인가구 연속토론회 시리즈3, SBS 보도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 제안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많은 방안이 시행 중 :
  - 법 제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획(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 맞춤 돌봄서비스, 지자체 별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 시행
- 사후 발견, 발견 이후의 조치 내용이 대부분 임
- 고독사 위험군의 대상자를 사전에 발견 '살리 수 있는 방안과 활동이 필요함'
-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
  - 퇴직자 모임을 활용 지역사회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경찰, 군인, 공무원, 교직자, 향우회, 동창회, 기타 각종 모임 활용
  - ※ 파격적인 인센티브 / 활동 여건 보장 (성과에 따른 보상, 장소제공, 위촉장 수여, 재정지원 등)
  - ※ 미국의 YANA(You Are Not Alone Program)
  - 우체국, 택배, 경비, 통장, 이장, 반장, 아파트 동대표, 학습지, 요구르트 배달원 등 다양한 인원 활용 (동기 유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보상, 포상 등)
  - 수도, 전기, 건보료 체납 독촉 통보시 지자체에 통보하여 확인
    - ※ 지자체 별 복지 사각지대 문제 확인을 위한 인력 보충 방안 ---> 해당 지역 노인 활용 (지리적 이점,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상호 간 친교)
  - AI 기반 활용한 확인체계 확충 (예 : SK텔레콤의 'AI 돌봄', 서울시 'lot안전관리솔루션' 과 '스마트플러그')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3 보이스피싱 예방

■ 현장의 소리

신하영 경감 : 서초경찰서

- 범죄발생 30,982건('21년) → 21,832건('22년)
- 피해금액 7,744억('21년) → 5,438억('22년)
- 전년 대비 30%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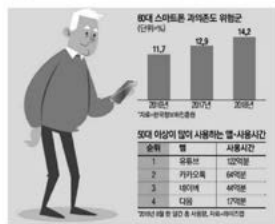
노년층 스마트폰 의존 높아짐

- "요즘 없인 못 살아"...어르신, 스마트폰에 빠지셨네요

노년층 스마트폰 의존 심화

단톡방·시사유튜브·트로트...  
폰 삼매경에 '실버 스몸비족' ↑  
설날 아침 온 가족 모여도 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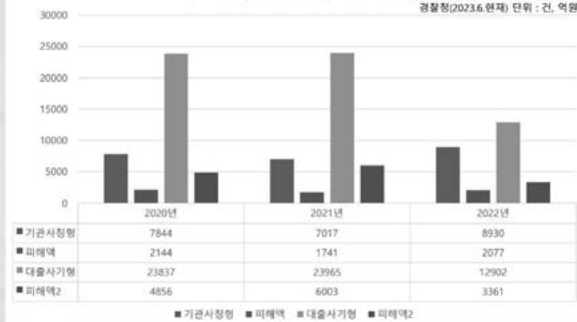
60대 7명 중 1명은 과의존 위험  
유·아동 다음으로 증가율 높아  
"노인 사회적 고립 부추길 우려"



출처 : 매일경제(김유신기자, 2020.1.23)

보이스피싱(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경찰청(2023.6.현재) 단위 : 건, 억원



-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현재 56.8%로 3.5배 증가.
-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늘었다.

노인 1인 가구의 정보력 취약, 고독, 외로움, 위기상황에 도움 받지 못함은 피싱 범죄 노출 가능 매우 큼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4 **돌봄기술 개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돌봄기술**

■ AI·IoT 기술 노인돌봄 로봇 및 건강측정기



휴머노이드 시로봇 페퍼



- 돌봄 로봇 '보미'
- 휴머노이드 AI 로봇 '페퍼'
- 가정용 AI 로봇 '마부'
- AI 반려 로봇 '효돌'
- 인공지능 말동무(미스터마인드)
- 전력량으로 위험 감지(에이나인)
- 건강측정기: 스마트밴드,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AI 스피커 등

■ IOT 와 이동통신사의 노인돌봄기능



SK 노인돌봄서비스 '누구오파'



KT 노인돌봄서비스 '기가지니'

- SK 노인돌봄서비스 '누구오파'
- kt 노인돌봄서비스 '기가지니'
- LG '말랑말랑 행복케어'

■ AI·IoT 기술 및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 SKT는 AI 스피커 누구(NUGU)를 기반으로 ICT 케어, 긴급 SOS 구조, 방문·상담 등 진행.  
 2년 동안 102명 어르신 위급상황에서 긴급 SOS 구조의 도움 받음

출처: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서비스 개발 사례 분석 및 전망,이용설,송승근

노인 1인 가구 돌봄 제안

4 **돌봄기술 개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돌봄기술**

■ AI·IoT 기술 노인돌봄 로봇 및 건강측정기



휴머노이드 시로봇 페퍼



- 돌봄 로봇 '보미'
- 휴머노이드 AI 로봇 '페퍼'
- 가정용 AI 로봇 '마부'
- AI 반려 로봇 '효돌'
- 인공지능 말동무(미스터마인드)
- 전력량으로 위험 감지(에이나인)
- 건강측정기: 스마트밴드,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AI 스피커 등

■ IOT 와 이동통신사의 노인돌봄기능



SK 노인돌봄서비스 '누구오파'



KT 노인돌봄서비스 '기가지니'

- SK 노인돌봄서비스 '누구오파'
- kt 노인돌봄서비스 '기가지니'
- LG '말랑말랑 행복케어'

■ AI·IoT 기술 및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 SKT는 AI 스피커 누구(NUGU)를 기반으로 ICT 케어, 긴급 SOS 구조, 방문·상담 등 진행.  
 2년 동안 102명 어르신 위급상황에서 긴급 SOS 구조의 도움 받음

출처: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서비스 개발 사례 분석 및 전망,이용설,송승근

노인 1인 가구 돌봄 지원

○ AI 서비스 효과

- 정서적 안정
  - 푸근함, 정을 붙임, 내 걱정을 해줌, 위로 받음
- 관리에 도움
  - AI의 안부전화의 기능에 맞춰 건강관리를 하게 됨
  - 규칙적으로 건강을 챙겨줌
  - 응급 상황에 도움을 줌

▣ 제안

■ AI 사용 결과 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 효용도가 낮음
    - 프로그램 구성이 단순함
    - 조금 더 편하게 작동했으면 좋겠음
    - 기계에 대한 이질적인 느낌(효돌이 인형)
    - 스마트 기계에 대한 사생활 유출 등에 거부감이 있음
- ※ AI 서비스 효과 및 개선 사항 자료 : 경기도 노인 1인 가구 실태 분석 연구

■ 기타 개선사항

- 노인 1인 가구인은 기기사용 능력 부족으로 기기 사용의 편리성이 요구되며
- AI나 ICT 기술로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 데이터 수집,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가 요구됨
- 다양한 개인적 욕구에 맞추고 대다수의 1인 노인가구에 스마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예산투자, 연구개발, 유관기관 노력)

출처: 경기도 노인 1인 가구 실태분석 연구



감사합니다



열고, 이어가는 우리 오픈도어





# 더 행복한 1인 가구 돌봄 정책을 꿈꾸며

이수진 센터장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이고립가구지원센터)

## 1. 1인 가구는 행복한가?

2022년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인가구의 행복지수는 5.7점으로 다인가구 행복지수인 6.4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인가구 남성은 20~60세까지는 낮아지다가 60세 이상부터 높아졌으며 1인가구 여성은 20~30대는 남성보다 낮다가 40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인가구의 경우 이처럼 남성과 여성 행복지수 간 차이가 있는 것과 달리 다인가구는 남성과 여성의 행복지수가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즉, 1인가구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편차가 높고 변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연령별 스트레스 요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40대까지는 재정상태와 대인 관계, 과도한 업무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50~60세 이상에서는 재정상태와 건강 상태,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전체 연령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재정지원, 관계지원이 주요함을 알 수 있었고, 20~40대까지는 과도한 업무(학업 등)이, 50세 이상인 중년이후에는 건강문제가 주요 스트레스 요인임이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022년 서울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행복지수]



[2022년 서울시 1인가구의 스트레스 요인]

\*출처 : 서울연구원 (2022)

## 2. 1인 가구,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을까?

2015년에 제작된 일본 애니메이션 ‘코다로는 1인 가구’는 코다로라는 이름을 가진 4살짜리 남자 아이가 아빠의 가정 폭력과 엄마의 아동학대(방치)로 원룸에 혼자 남겨졌지만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원룸텔엔 은둔형 외톨이 만화가 청년, 이혼남,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등이 살고 있는데 각자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다가 코다로를 돌보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 갔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며 조금 소름끼쳤다. 설마 1인 가구의 연령이 아동까지 내려가면 어쩌나 하고. 어쨌든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각기 다른 유형의 1인 가구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먼저 유치원에 가야 하는 코다로는 원룸 사람들이 삼촌과 이모 같은 가족이 되어 돌봐준다. 쓰레기가 가득찬 방에서 돈벌이가 되지 않는 만화를 그리던 청년은 코다로를 돌보며 자신감과 일거리를 찾는다.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은 코다로를 돌보며 만나게 된 이웃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안전함을 느낀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장 많이 느낀 것은 1인 가구이지만 사회적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다행히 원룸에 사는 모든 1인 가구가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났다. 정말 만화 속 이야기였다.

어떻게 하면 1인 가구가 행복해 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두 분 발표자님들의 제언이 무척 반갑게 느껴졌다. 1인 가구의 입장에서 현상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제시한 대안들이기 때문이었다. 두 분의 제언을 종합해 보면 ‘혼자 살아도 건강하고 안전하며 고립되지 않은 삶’이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기본 생활을 위한 수입, 안전한 주거와 사회 환경, 건강한 식사, 사회적 관계를 위한 일자리와 위기 상황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정책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동물이라 일컫는 한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정책으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현가능한 것이 바로 돌봄 정책이 아닌가 한다. 아무래도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등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돌봄 정책은 보다 1인 가구의 연령, 유형에 따라 보다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이슈화 되면서 이제는 ‘관계 돌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4살 코다로가 관계 돌봄의 매개체가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전문기관과 전문가, 지원정책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 3.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서울시는 ‘18년부터 제1기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왔으면 ’23년 6기 까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22년 제5기 계획에 포함되어 ’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한 광역단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전문기구이다.

센터는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자치구, 동과 같은 공공복지기관과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크게는 사회적 고립가구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사회와 민관 복지기관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24시간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운영 지원과 사회적 고립가구 인식개선, 사회적 고립예방 플랫폼 개발 사업 등이 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설치한 스마트플러그(IoT)와 AI안부확인전화 등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운영지원이다. 고립가구 인식개선 사업은 대 시민 포럼, 홍보물 및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돕고자 한다. 마지막 고립예방 플랫폼은 시민들 누구나 본인과 가족, 친구, 이웃의 사회적 고립상황을 점검하고 알리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25개 구청과 동주민센터, 민간 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매뉴얼 개발, 고난이도 거부가구 사례연계 지원 사업, 민간 복지기관 공모지원 ‘있다’사업, 자치구 단위 고독사 예방 협의체 운영지원,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우리동네돌봄단’ 지원 사업, 광역단위 민간자원 개발 및 협력 사업 등이 해당된다. ‘23년 9월 말 기준 총49개 민간기관 협력지원으로 5,116명의 고립가구를 접촉·발굴하여 21,685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SH공사 및 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서울지역 13개 임대단지에 대한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센터에 걸려오는 전화 중, 사회적 고립 당사자인 경우가 종종 있다. 10년간 집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자신이 사회적 고립가구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와 가족, 친구, 이웃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조성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더 행복한 1인 가구 돌봄 정책 제언

마지막으로 더 행복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정책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은둔 고립 청년과 1인 중장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곳이었다. 청년, 중장년은 노인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식사 서비스가 제공 될 경우 청년은 칼로리가 높은 고열량식이 필요하지만 노인의 경우 당뇨, 고혈압 등 질병으로 인한 영양식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우에도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전 이해 없이 청년을 무시하거나 혼계하려 든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타인에 의한 일상 돌봄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을 배우고 찾는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자존감과 효능감이 상승될 수 있다. 그 첫째가 자기 돌봄이라 생각한다. 어느 정도 자기 돌봄이 가능해지면 그 때는 봉사 등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가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전 생애에 걸친 사회적 고립 예방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기 은근과 사회적고립 가구 중 일부는 중고등 및 대학생 시기 왕따와 따돌림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중년기 사회적 고립가구는 청년기부터 은둔형 외톨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은둔형 중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대상별 특성에 따른 지원도 중요하나 영국처럼 전 생애에 걸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한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1인 가구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 진다 해도 정작 당사자들이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1인 가구를 위한 기본 생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1인 가구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영상이나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 1인 가구가 전입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그에 대해 안내(교육영상 QR코드)하고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지급하여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복지, 건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해당 기관과 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사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정책이 중요할수록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차근차근 설계하여 준비해야 한다.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1인 가구에 정말 필요한 적체적소 정책과 예산지원은 되지 않고 예산과 서비스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어떨까? 사회적 문제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공포로 까지 이어진 건 아닌지.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라면 좀 더 차분한 시선을 갖고 바라보아야 한다. 공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이 보다 풍성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1인 가구로 늙어 갈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외롭고 불행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꼭 필요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험하고 확대해 보는 일일 것이다. 지금, 정부는 그런 정책을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1인 가구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돌봄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 가족포함 & 성과보고 가족정책서비스 해법찾기

김현섭 대표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

## 1. 유품정리, 고독사 현장에서 체감하는 1인 가구의 문제점

- 중장년 남성, 70세 이상의 남성, 여성의 1인 가구에서 주로 사망사건 발생
- 다양한 원인으로 혼인률이 낮아지며 중장년 미혼 남성 1인 가구의 증가
- 고령의 1인 가구는 사별 이외에도 의료기술 발달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증가추세
- 젊은 세대의 경우 가족이 있어도 별도의 1인 가구 구성비율이 높음
- 세대별 1인 가구의 공통된 문제는 경제적 빈곤 문제와 사회적 교류 단절
- 중장년 남성의 경우 실직과 사업실패, 이혼 등으로 교류가 단절되면 여성에 비해 지역 이웃들과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맺기 어렵고 사회적 복귀가 어려움
- 노년층의 경우 작은 문제도 상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이웃과의 교류도 희미해짐

## 2. 1인 가구 가족정책서비스 해법 제안

- 부처 별로 산재되어 있는 1인 가구 관련된 지표를 별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 소득수준, 질병, 부채내역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과 예산의 제한이 있는 1인 가구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
-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어촌에 적합한 네트워크 생성과 활성화
  - 중장년 1인 가구가 청년 1인 가구에 직업 훈련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청년 1인 가구가 중장년 1인가구에게 디지털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필요
  - 1인 가구 구성원이 타인과의 교류나 직간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지역 창구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안전망 강화
-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세분화된 일자리 구축
  - 적은 근무시간이나 낮은 급여, 단순한 직무를 담당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1인 가구에 제공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문제 해결
  -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을 발생시켜 공적 부조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고립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1인가구 돌봄 및 정책 서비스에 대한 토론편

이승은 연구원  
(국가트라우마센터)

## 시작하는말

2022년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인가구의 행복지수는 5.7점으로 다인가구 행복지수인 6.4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인가구 남성은 20~60세까지는 낮아지다가 60세 이상부터 높아졌으며 1인가구 여성은 20~30대는 남성보다 낮다가 40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인가구의 경우 이처럼 남성과 여성 행복지수 간 차이가 있는 것과 달리 다인가구는 남성과 여성의 행복지수가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즉, 1인가구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편차가 높고 변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연령별 스트레스 요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40대까지는 재정상태와 대인 관계, 과도한 업무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50~60세 이상에서는 재정상태와 건강 상태,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인가구 전체 연령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재정지원, 관계지원이 주요함을 알 수 있었고, 20~40대까지는 과도한 업무(학업 등)이, 50세 이상인 중년이후에는 건강문제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여성 및 청년 1인가구 돌봄

첫 번째 발표로 여성 및 청년 1인가구의 돌봄이었습니다. 청년 1인가구의 특성으로는 사회 초년생인만큼 소득과 자산이 적고, 주거비 과부담 비율 등 주거 전반이 다른 세대보다 취약합니다. 생애주기상 신체 및 정신건강은 가장 양호하지만, 먹거리 안정성과 식생활이 취약해 먹거리 관련 서비스 수요가 높습니다. 청년 1인가구의 이행기 특성에 맞게 경제, 주거 안정망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을 빈곤과 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청년 여성 1인가구는 시간 빈곤, 중장년 여성 1인가구는 미래 빈곤에 대한 불안, 노년 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 빈곤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는 ‘침입’과 ‘(혼자사는 여성이라는)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집 안팎에서의 범죄위험에 대한 노출에 대한 안전한 거주환경 지원, 여성 1인가구 간 연대 및 자조 모임 지원 등의 제도적 요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인 1인가구 돌봄

노년 1인가구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으며, 사별로 인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노인 1인가구

는 노화로 인한 각종 건강문제에 직면하면서 발생하는 건강과 생계 이슈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건강 이슈는 1인가구의 특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이지만 주거형태와 노후준비에 따른 생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망 이슈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노후 준비도에 대한 차이가 정책 요구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취약 노인 1인가구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으로 생활비 부담이 크고 건강 악화로 인한 건강 및 생활관리에 어려움이 커 경제적 지원, 돌봄과 건강관리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인 1인가구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고독사에 대한 우려,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등의 건강지원과 더불어 응급상황 시의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돌봄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맺는말

1인가구는 취약계층만은 아닙니다. 물론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경제, 주거, 건강 등 분야별로 취약한 1인가구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집중 지원하게 되면 1인가구 정책은 경제, 복지, 보건 분야별 기존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1인가구 정책이 기존 취약계층 지원책과는 차별화하며 취약성을 가진 1인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취약하지 않은 1인가구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보장하고 취약가구로 전환되지 않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투트랙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사람들을 1인가구로 묶었기 때문에 집단 내 이질성이 큼니다. 이에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사업보다는 집단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하위 집단별 취약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한 소도시여도 지역에 따라 대학이 위치하면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외곽 지역이면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 군, 구 단위별 차별화된 전략적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읍, 면, 동 수준의 성별, 연령 1인 가구 특성이 반영된 맵이 그려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이 계획되어야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1인가구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중장년 1인가구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노년은 상대적으로 분야별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있어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이 많지만 중장년 1인가구는 사각지대에서 정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사회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기 쉬운 집단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조사를 해보면 청년 1인가구는 학교, 직장, 변화가 근처에 거주하며 밀집도가 가장 높고 거주기간이 짧으며 친구, 동료 중심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고, 노년 1인가구는 젊은 시절 거주하던 곳에 오래 거주하는 경향이 있고 거주기간이 긴 만큼 가족, 이웃 중심의 관계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중장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지역에 살고 있으며 밀집도가 낮으며 사회적 고립이 심합니다. 또한 경제와 주거가 매우 취약한 반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지만 비용이나 조건에서 배제됨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또는 이용률도 낮은 상황입니다.

중장년의 취약한 상황은 노년 1인가구의 위기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 경제, 생활서비스 관련 지원 등을 강화하여 중장년 1인가구가 취약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1인가구 돌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의 좋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